

특별기고



한 승철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주에서는 물류비가 많이 들어 제조업하기가 힘들다는 게 통설이다. 지난달 말에 제주 중소기업의 물류 효율화를 위한 공공 세미나가 있었다. 제주공동물류이용기업협회, 제주바이오기업협회, 제주6차산업협회,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 제주화장품기업협회, 제주창업기업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일자리경제국 통상물류과)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농수축경제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주관 지원을 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제조업 기업들의 공동관심사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두기에 부족함이 없다. 특히

물류에서 제3의 수익원을 찾다

물류에서 제3의 수익원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교감했다. 썬 노동력이 확보될 때 제1의 수익원이 되고, 원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때 제2의 수익원이 되고, 물류비를 절감했을 때 제3의 수익원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미나 주제는 제주물류공동화사업이었다. 현재 134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물류공동화사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향상됐다는 성과를 공유했다. 더불어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공동물류센터 구축, 지게차 지속 지원 등 제조업체들이 바라는 정책들이 향후과제로 상정됐다. 제주물류공동화사업은 각 기업들의 상품을 공동 수송함으로써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수송할 때의 물류비의 일부만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2009년에 시작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결과, 특히 올해부터 보관료 감소와 직송운송을 통한 운송료 절감으로 기업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예산이 더 확대되면 이

용률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의 산업구조에서 지나치게 작은 비중의 제조업 문제는 주지하는 바다. 제주의 원재료를 활용해 고부가가치의 제조상품이 많이 나오면 1차 산업과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더 확대할 수 있기에 그러하다. 그래서 3%의 비중에 불과한 제조업을 5% 이상 확대시켜야 한다는 전략과 정책들이 있었지만, 제조업의 비중은 요지부동이다. 종사자 측면에서도 5인 이하의 제조업이 75%를 차지한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파렛트단위로 규모가 있게 상품을 육지로 판매수송하는 공동물류이용 기업수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렇다면 물류공동화사업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 혜택이 제조기업에게 돌아가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그로인해 제조업의 생산액이 늘어나면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개편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공동물류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의 물류비 문제해결에는 손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말이다. 지역물류에서 물류공동화사업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면서도 그렇다고 성공을 거두기가 녹록지 않다. 기업마다 물류전략이 없으면 파트너십이 필요한 물류공동화나 물류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많이 나왔다. 오랫동안 제주기업의 물류비조사가 없어, 2009년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 자료를 인용하면 제주기업은 14.8%로 전국평균 6.0%보다 훨씬 높다. 물류공동화사업은 중소제조업 지원 정책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의 하나로, 제주기업의 과도한 물류비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적인 정책모델이 될 듯하다. 제주에 크고 작은 물류문제가 이슈들이 많다. 큰 과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아야 할 것을 더 발전시키는 것도 물류정책 방향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설

추석 민심 새겨서 민생 살피는데 진력해야

가을 장마와 태풍이 휩쓸고 간 추석 민심이 절절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도민들 사이에선 농작물 가격과 침체된 지역경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추석을 앞두고 들이닥친 태풍 ‘링링’에다 장기간 이어진 가을 장마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농민들은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을 앞두고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농작물 파종·관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출하시기를 앞두고 있는 감귤은 태풍과 일조량 부족, 잦은 비 날씨 등으로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감자, 당근, 양배추, 콩 등 주요 밭작물도 앞으로 작황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농작물 작기 파종과 적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가소득 감소와 도내 1차산업 위축 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주도정을 비롯한 관련 당국의 관심과 지원대책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바짝 타들어 가는 농심을 잘 헤아려 피해 대책

해마다 사라지는 산림이 이렇게 많다니

제주지역의 산림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10년 새 도내 사유림이 마라도 면적 100개 정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각종 개발로 산림이 날로 파괴되고 있어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조사한 ‘2018년 전국 산주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야 637만ha 중 사유림은 419만ha(소유주 216만명)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사유림 산주의 85.6%가 3ha 미만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 임야 소유자가 35만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지역의 전체 임야면적은 8만6789ha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유림은 5만351ha, 공유림은 3만6438ha로 사유림이 전체 임야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림 개인산주의 도내 거주 비율은 46.1%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의 임야 면적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사

열린마당

서흥동 탐방프로그램에 함께 하세요



오 은 정
서귀포시 서흥동 주민자치팀장

서흥동을 서귀포시청이 있는 서귀포시 행정의 중심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만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 그러나 서흥동은 고려시대부터 촌락을 이루어 마을을 형성한 곳으로 역사가 깊고 명소도 많다. 서흥동과 서흥동주민자치위원회는 좋은 이웃들과 답소를 나누며 서흥동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서흥8경, 추억의 숲길 등을 찾아다니는 서흥동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3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서흥동 탐방프로그램은 서흥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까지 알려지면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서흥동 탐방프로그램에서는 하는,

온주감귤 사원지 같은 서흥8경 및 추억의 숲길을 방문하고 토박이 마을해설사의 감칠나는 해설을 통해 서흥동과 제주의 문화,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을 수 있다. 또한 서흥동 출신이면서 기담미술관 초대관장인 변시지 화백 그림과 그의 자취가 있는 기담미술관, 옛서흥마을과 삶의 모습이 기록된 사진과 유물들이 소장된 서흥마을역사관, 옛집터 등 서흥동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자 역사 유적이 보존된 추억의 숲길 등을 통해 우리의 문화와 삶이 어우러진 곳들도 볼 수 있다. 서흥8경과 추억의 숲길에 얹힌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가 할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9월 21일에는 추억의 숲길과 삼나무군락지 등을 탐방하는 2코스가 예정돼 있다. 올 가을 지역주민에겐 공동체의식을, 정착주민과 다문화 가족에겐 새로운 경험을, 관광객에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서흥동 탐방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현장서 체감하는 제주 복지체계 만들 것”

원지사, 사회복지의 날 격려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6일 “행정과 도의회 의정, 현장 복지종사자와 복지 당사자 모두가 화합하는 복지제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 원 지사는 이날 제주글래스 제주에서 열린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 관계자를 덕분에 더 나은 복지사회, 돌봄이 튼튼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격려. 이어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주의 복지체계를 만들어 구체적인 복지사회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참여와 관심을 촉구. 조상윤기자

환경미화원 체현한 부시장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이 현안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미화원 1일 체험을 실시해 눈길. 이 부시장은 16일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며 미화원들의 애

로사항을 듣고 쓰레기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이 부시장은 “일부 음식점 외국인 종업원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봉개매립장 악취 저감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쓰레기 분리배출과 음식물 잔반 감량에 주력하겠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수확축전 20주년 관심 당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제주수확축전 20주년에 관심을 당부. 이 교육감은 16일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이번 주말 열리는 수확축전이 올해 20주년을 맞는다”며 “교사 6명의 자발적 노력으로 시작된 축전이 전국과 해외에서 1000여명 이상 참석하는 국내 대표 교육축제로 발돋움했다”고 평가. 이 교육감은 또 “수확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뿌리 내리고, 수확문화를 바랄 수 있었다”며 “교육청 직원들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요청. 표성준기자

부 고

김민숙 아버지 **광산김공 봉용** (향년 87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16일 04시 40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9월 18일(수)
▶발인일시: 2019년 9월 19일(목)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함덕제주장례식장 3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딸 김민자(개일본)
민숙 사 위 김인곤
민경 문경국

손 자 김한철
한진
보근
보현
문선필
정필

※ 연락처 : 김민숙 010-5721-7072
김인곤 010-9840-7072
문경국 010-3869-9644

부 고

송상보(前 중등교사) 어머니 **군위오씨 계생**(안·향년 97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14일 09시 15분 노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9월 17일(화)
▶발인일시: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9시
▶발인장소: 천주교 서문성당
▶장 지: 오리동 가족묘지(오리동 3741-5)

아들 송상보(배우) 문채영(아내)
상택(아내) 임연재(아내)
영수(아내) 고순정(아내)
딸 송경례 사위 허문웅
경순 김은수
경심 허군진
경생 선장일
손자 송유환(배우) 외손자 허성관
유현(아내) 허성실
손자 송유라(배우) 김수환
유진(아내) 허 린
은정(아내) 선동수
은진(아내) 허영은
미선(아내) 허용실
미지(아내) 김지향
김지현
허연주
선신애

친족친 송승문

※ 연락처 : 송상보 010-2699-7998 송상택 010-2598-2237
송영수 010-9898-0555 허문웅 010-2691-1818
허군진 010-2662-5556 송경심 010-3070-2430

부 고

김봉용(前 제주시청 공무원) 아버지 **광산김공 정수**(향년 86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14일 05시 4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9월 17일(화)
▶발인일시: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구좌읍 가족묘지

부 인 강진숙
아 들 김봉용 며느리 강경자
딸 김순희 사 위 강승협
희선 이권희
지아 오상필
래생 김동배
손 자 김승현 외손녀 강지은
손 녀 김희지 오영경
리하 이승학
도연 오영민

※ 연락처 : 김봉용 010-3690-0544
강승협 010-2698-0568
김순희 010-4696-4665
김희선 010-2692-5847
김지아 010-2690-5229

부 고

양영수(제주 기원) 어머니 **진주 강씨 만수**(향년 96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16일 03시 57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9월 18일(수)
▶발인일시: 2019년 9월 19일(목)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분향실
▶장 지: 봉성리 선영

아 들 양동기(故)
태관(故) 며느리 강민정
태종(故) 백길인(영일)
영수 김삼섭
광수 홍길창(故)
딸 양필순(故) 사 위 양유성
손 자 양철호 손 녀 수연
철호 수연
철우 혜진
철순 재원
철진 효정
철성
철석
철지

※ 연락처 : 양영수 010-9990-5498
양광수 010-5624-9750

방수 단열
우 레 탄
우 레 아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자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 연락처 : 양영수 010-9990-5498
양광수 010-5624-975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887, 010-5755-88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서울2리 용암동글게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계분 판매합니다.
(배 달 가 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사로106-7)